

11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024 이름: _____ 목장/성경통독 소그룹: _____

11월	책 이름	매일 양식 성경
1 금	사도행전	1□ 2□ 3□ 4□
2 토		암송 엡2:8-10□
3 주	사도행전	5□ 6□ 7□
4 월	사도행전	8□ 9□
5 화	사도행전	10□ 11□ 12□
6 수	사도행전	13□ 14□ 15□
7 목	사도행전	16□ 17□ 18□
8 금	사도행전	19□ 20□
9 토	사도행전	21□ 22□ 23□
10 주	사도행전	24□ 25□ 26□
11 월	사도행전	27□ 28□
12 화	로마서	1□ 2□ 3□
13 수	로마서	4□ 5□
14 목	로마서	6□ 7□ 8□
15 금	로마서	9□ 10□ 11□
16 토	로마서	12□ 13□
17 주	로마서	14□ 15□ 16□
18 월	고린도전서	1□ 2□ 3□
19 화	고린도전서	4□ 5□ 6□
20 수	고린도전서	7□ 8□ 9□ 10□
21 목	고린도전서	11□ 12□ 13□ 14□
22 금	고린도전서	15□ 16□
23 토	고린도후서	1□ 2□ 3□
24 주	고린도후서	4□ 5□ 6□
25 월	고린도후서	7□ 8□ 9□
26 화	고린도후서	10□ 11□ 12□ 13□
27 수	갈라디아서	1□ 2□ 3□ 4□ 5□ 6□
28 목	에베소서	1□ 2□ 3□ 4□ 5□ 6□
29 금	빌립보서	1□ 2□ 3□ 4□
30 토	골로새서	1□ 2□ 3□ 4□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골4:14)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했으며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도 함께 있었다(딤후4:11).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로, 4권의 복음서와 21권의 서신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성경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1:8)을 사도들을 통해 성취해가는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로마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 13권(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중 첫 편지인 로마서는 주후 57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15:25). 로마서는 복음, 곧 죄인으로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선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오직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힘 있게 전한다.

고린도전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중 18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며(주후51-52년)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교도로 살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이방인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이교도의 삶, 곧 분쟁, 음행, 우상 제물 먹기 등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고,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낸다. 이 책에는 영적 은사(12, 14장), 사랑(13장), 부활(15장)을 증거하는 귀한 장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성도들을 흔들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고 이어서 이 편지를 보내어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실과 권위를 설명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으려면 할례 등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혼란이 온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선물임을 명확하게 가르친다.

에베소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되는 삶,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한다.

빌립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사랑의 후원에 감사하고, 참된 기쁨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골로새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혼란을 가져온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반박하고 성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